

'다름의 동행 더 아름다운 전북'

전북도, 제38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장애인 차별·인식 개선위해 14개 시·군 편의시설 전수조사 실시 복지정책 반영

전북도는 19일 제38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다름의 동행 더 아름다운 전라북도'를 주제로 전주화산체육관에서 열었다.

이날 행사는 사단법인 전북장애인정보문화협회와 한국신장장애인전북협회의 공동 주관으로 장애인가족과 대한적십자사 자원봉사자, 송하진 도지사, 김승환 교육감, 김성주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등 1,500여명이 함께했다.

기념식에서는 기념사, 전라북도지사의 장애인유공자 표창, 장애인인권헌장낭독에 이어 장애인과 한마당 축하행사에서는 다양한 공연과 함께 장애인의 장기자립이 펼쳐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을 펼쳤다.

전북도는 이번 제38회 장애인의 날

에 맞춰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전북도내 14개 시·군에 있는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일제히 실시하여 장애인 복지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도내에는 현재 13만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으며 총 1,462억 원의 예산을 들여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 장애인단체 지역사회활동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축사에서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이 사회생활에서 더 우대받고 더 잘 살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행복한 사회를 조성하고 장애인의 권익신장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19일 제38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다름의 동행 더 아름다운 전북'을 주제로 전주화산체육관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 조종 한국신장장애인전북협회장, 김승환 교육감, 김성주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김광수 국회의원, 장애인가족과 대한적십자사 자원봉사자 등 1,500여명이 함께했다.

LX공사 완주지사 지적측량업무 연찬회

한국국토정보공사 완주지사(지사장 김성수)는 18일 완주지사 회의실에서 완주군 지적업무 담당공무원과 지적측량업무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 연찬회를 했다.

연찬회는 완주군 지적업무담당자와 LX한국국토정보공사 완주지사 직원들이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교류를 위한 것이었다.

또한 지적측량 관련 전반사항 및 2012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진행 중인 지적재조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식습득 및 개선사항 등을 협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무허가 축사 양성화 사업 및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시행에 따른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힘을 예견했다.

김성수 완주지사장은 "정기적인 연찬회를 개최하여 한 차원 높은 서비스로 군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최수호 기자

ICT와 함께하는 스마트 귀농과정 교육생 모집

농협 미래농업지원센터
40~50대 대상 5월 31일까지

농협(회장 김병일) 미래농업지원센터는 40~50대 은퇴, 전직 후 귀농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ICT와 함께하는 스마트 귀농' 과정 교육생을 오는 5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6월19일부터 9월14일까지 4개월 동안 진행되며 각 월별 1박2일(4회합) 합숙교육(강의 55%, 현장실습 28%, 견학 5%, 토론 12%) 형태로 진행된다.

또한 귀농을 희망하고 있는 40대와 50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031-659-3644)로 하면 된다. ICT와 함께하는 스마트 귀농 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귀농귀촌종합센터)이 주관하는 귀농·귀촌 인증과정이다.

김석기 미래농업지원센터 원장은 "농촌의 급속한 고령화로 농업의 지속 가능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 농촌에 대한 이tron민을 전달하는 교육이 아닌 현장 체험위주의 실질적인 교육을 적극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수호 기자

6·13 지방선거

전북도교육감 전주시장 예비후보 동향

"고창지역 학생 기초학력 신장 나설 것"

서거석 교육감 예비후보

서거석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19일 "고창지역 학생들의 기초학력 신장과 안전, 복지 등 수준 높은 교육 환경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거석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이날 고창지역 교육 발전에 대해 "전북의 중학교 3학년 기초학력이 최근 5년간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면서 "고창 학생의 기초학력 진단과 보정 시스템 운영, 개인별·원인별 맞춤형 지도 관리 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고창의 다문화가정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한국어에 서툴러 아이가 학습 부진을 겪는 경우가 많다"면서 "다문화가정교육지원센터 신설, 다문화가정 출신 학습상담사 배치, 예비학교 운영 등을 통해 학력신장과 학생복지 등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서 교육감 예비후보는 또 "교육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학생 안전과 관련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전담할 부서를 신설, 학교시설 노후에 따른 농촌지역 학교에 대해 우선적 안전 대책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놀이와 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공공형 키즈안전카페' 설립을 지자체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민주화 열망한 4.19 정신 지켜나가야"

김승수 전주시장 예비후보

김승수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4.19혁명 제58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다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며 4.19정신을 되새겼다.

김승수 예비후보는 19일 논평을 통해 "58년 전 오늘 그 김주열 열사를 비롯한 전국의 어린학생들과 시민들은 이승만 정권의 불의에 항거해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을 펼쳤다"며 "이는 오늘날 촛불혁명을 비롯해 대한민국이 모든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한 밑거름이 됐다"며 애도의 뜻을 표했다.

특히, 김 예비후보는 "이러한 4.19혁명의 민주이념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등과 함께 대한민국 헌법에도 명시된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지키고 계승해나가야 할 숭고한 이념이자 고귀한 가치"라며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가능했던 4.19민주이념과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권력은 시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또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도 민주주의의 이념인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 최우선일 것."이라고 밝혔다.



기동취재반

도내 자영업자 일자리

안정자금 특례보증 지원

농협은행 전북본부, 전북신보에 10억원 기금 출연

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19일 도내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용무)에 10억 원의 기금을 출연하기로 했다.

이로써 농협은행 전북본부는 2002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설립 이래 총 70억 원을 출연했다.

이는 도내 금융기관 중 가장 많은 기금 출연으로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보증서 발급을 통해 연간 500억 원 정도의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특례보증' 지원 사업은 농협은행 전북본부가 전북신용보증 재단에 10억 원을 출연하고 전북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특별보증을 지원한다.

전북도가 대출기간 8년 중 3년간 1%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 줌으로써 도내 영세자영업자는 2% 후반의 낮

은 금융비용으로 농협은행으로부터 업체당 최고 5000만원 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협은행 각 영업점 및 전북신보 각 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장근 본부장은 "최저임금·대출금리 인상과 한국GM 군산공장 및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공장 가동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영세 자영업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출연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담보력이 미약한 도내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해 앞으로 도 계속 지원해 전북 경제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수호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